

전남 단체장 직무 평가

대체로 잘한다... 50~60대 긍정적 젊은층은 부정적

정종득 목포시장

70·민·3선

긍정평가가 약간 우세

정 시장의 직무평가에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7.0%로,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성용 광양시장

69·무·3선

시민 절반 "잘하고 있다"

광양시민 절반 이상(59.5%)은 이 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2.3%였다. 대체로 전 연령층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60대는 79.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남 단체장 평균

직무수행평가 TOP 5

이명흠 정기호 김중식 정종해 김양수
정홍군수 영평군수 완도군수 보성군수 장성군수

김중식 완도군수

60·민·3선

직무평가 71.2% 긍정적

3선인 김 군수의 직무평가에 대해 완도 군민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1.2%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2개 자치단체장 중 이명흠 장흥군수, 정기호 영광군수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삼석 무안군수

51·민·3선

54% 잘한다 34% 못한다

무안군민 54.4%는 서 군수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34.6%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별로는 남성(48.8%)보다 여성(59.9%)의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김중식 여수시장

71·무·2선(민선 3·5기)

전 연령층 고루 긍정적

'잘하고 있다'(64.1%)는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27.3%)는 부정적 평가에 비해 36.8%포인트 높았다. 전 연령층에서 고루 50%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고, 특히 60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평가를 받았다.

최형식 담양군수

55·민·2선(민선 3·5기)

10명중 7명 잘하고 있다

담양군민 10명 중 7명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60대와 50대는 각각 78.2%, 72.9%로 압도적이었다.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0%에 불과했다.

서기동 구례군수

65·민·재선

22개 시·군 중 유일 '못한다'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직무평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45.7%)는 응답이 '잘 하고 있다'(39.8%)는 답변보다 더 높았다.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홍이식 화순군수

53·민·초선

전체평 좋으나 20대 부정적

4·27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홍 군수의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60.1%였지만, 20대 응답자의 45.8%는 홍 군수가 '직무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철환 해남군수

52·민·초선

22개 시·군 중 두번째로 낮아

해남군민 절반(51.8%) 가량이 박 군수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두 번째로 긍정적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50대는 부정적 평가(45.6%)가 긍정적 평가(44.4%)보다 높았다.

정기호 영광군수

57·민·재선

22개 시·군 중 두번째로 높아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중 이명흠 장흥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직무평가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71.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6%였다.

노관규 순천시장

50·무·재선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

순천시민 10명 중 7명은 재선인 노 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0대와 60대에서는 7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67.2%) 보다는 여성(71.4%) 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김양수 장성군수

60·민·초선

50~60대 긍정 압도적

행정공무원 출신이어서 군민들의 직무평가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군민 10명 중 7명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연령층과 남녀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왔다.

박병중 고흥군수

57·민·재선

모든 연령층 고르게 긍정적

응답자의 64.4%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5.2%에 불과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50~70% 이상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흠 장흥군수

62·민·재선

22개 시·군 중 긍정평가 최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73.5%로,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30대와 60대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진 진도군수

65·민·초선

긍정·부정 큰 차이 없어

이 군수에 대한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52.2%)와 '잘못하고 있다'(40.4%)의 응답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40대에서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62.5%로 높았기 때문이다.

안병호 함평군수

63·민·초선

초선군수 일 잘하고 있다

초선임에도 직무평가에서 긍정적 답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8.8%였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임성훈 나주시장

51·민·초선

성별·연령층 대체로 긍정

응답자의 66.0%가 초선인 임 시장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 반면 2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답변을 했다. 남녀 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허남석 곡성군수

55·무·초선

20~30대 50% 잘못한다

대체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대·30대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50%와 47.1%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정종해 보성군수

64·민·재선

재선군수 70% 지지율 유지

보성군민 10명 중 7명은 재선인 정 군수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3.4%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47.1%포인트 높았다.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황주홍 강진군수

59·무·3선

무소속 3선 군수 후한 평가

응답자의 69.8%가 3선인 황 군수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9%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8.7%, 70.8%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김일대 영암군수

66·민·재선

20~50대 50%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5%로, 잘못하고 있다(28.3%)는 응답에 비해 33.2%포인트 높았다. 20대~50대까지 응답자의 50% 이상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60대에서는 75.9%로 가장 높았다.

박우량 신안군수

54·무·재선

무소속 재선 대체로 긍정

민주당 텃밭인 신안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을 한 박 군수는 대체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보다 42.1%포인트 높았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올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